

해남군, 인구유입 총력 빈집재생 프로젝트 대상 확대

전입 2년 이내인 자 추가 적용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 완화

전라남도 해남군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남형 '빈집재생프로젝트'의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5월 기준 해남군의 빈집은 1114개로 확인됐다. 빈집은 범죄 발생률 상승, 화재·붕괴·안전 위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빈집이 또 발생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은 '철거 후 신축'으로, 기존에는 전입 예정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남군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타 지역에 지속 거주하다가 전입 예정이거나 해남군 전입 2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을 완화해 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개소당 최대 3000만원, 총 공사금액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

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개발 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춘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계절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제공 84% 460명 등록 완료

전라남도 무안군이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기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상반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의 등록은 6월과 7월에 집중돼 민원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당일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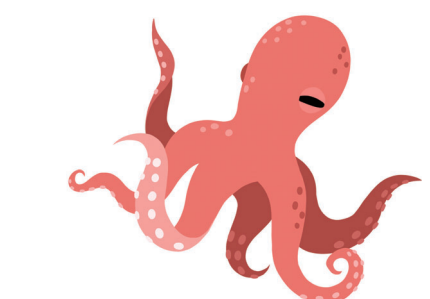
이에 무안군은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농번기로 바쁜 지역 농가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불편을 덜었다.

현장 민원서비스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을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됐으며 상반기 입국 계절노동자 547명 중 84%인 460명이 등록을 마쳤다.

군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접수 지원에 나서는 등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무안군은 현장 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계절노동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준비와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신안군, 해양 생태계 건강성 증진 낙지 방류

전라남도 신안군이 지난 24일 세계자연유산 신안갯벌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낙지 4000마리를 방류했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낙지 방류사업은 낙지자원의 자원량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안군 수산연구사업소와 협업, 암·수 1쌍을 2~3일간의 교접작업 후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접을 통해 방류한 낙지는 일반적으로 100여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류한 낙지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낙지 금어기에 방류를 추진하고 어촌계와 함께 직접 방류함으로써 낙지 자원량 증대를 통해 갯벌생태계 회복과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신안갯벌의 낙지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낙지라고 할 수 있다"며 "군민들과 협력하여 낙지자원을 방류하고 보호하는 만큼 낙지자원의 증대를 통해 생태계의 회복과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 수산연구사업소 직원들이 지난 24일 압해읍 해안 일원에 낙지 4000마리를 방류 했다.

신안군 제공

목포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보급

1대당 최대 80만원 지원

전라남도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6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일러 1대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LPG보일러를 뜻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인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 중 2025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세대이며 세입자일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구매자가 접수 기간 내에 기후

환경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신청자가 보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제28회 연꽃축제 연다

오늘 일로읍 화산백련지

전라남도 무안군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무안 대표 축제인 제28회 무안연꽃축제를 오는 26일부터 29일 까지 4일간 일로읍 화산백련지에서 개최한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여름이 커지는 순간, 무안에서'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기획·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초여름의 낭만을 느끼고 싶은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박지현과 에녹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7일(금)에는 한동근, 손순희, 엔분의일이 출연하는 '썸온(SUM:ON) 콘서트' △28일 구창모, 홍서범, 조갑경이 함께하는 '대학가 요제 리턴즈'와 싸이버거의 '댄스 투나잇' △29일 청춘마이크와 박군·강혜연·요요미가 함께하는 '태군노래자랑'이 진

행된다.

주말인 28일과 29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화산백련지 물놀이장 특설무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워터밤 파티 '워터樂페스티벌'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실력을 겸비한 DJ와 댄스팀이 함께하는 EDM 파티와 레크레이션 사회자의 신나는 이벤트, 물대포와 버블건을 활용한 물놀이로 관광객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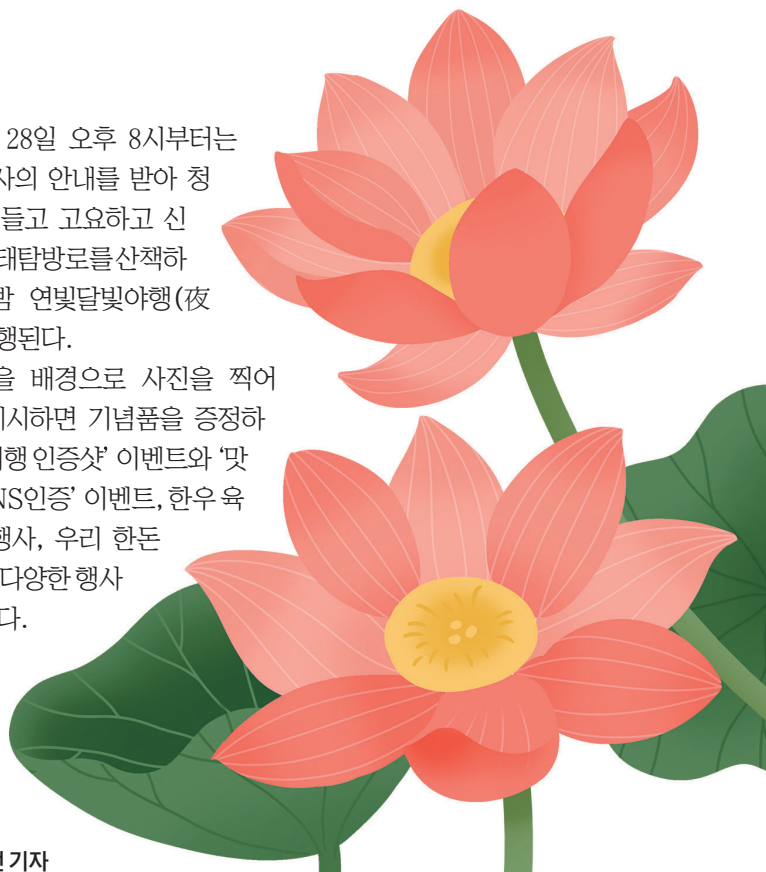
태권V·아이언맨·뽀로로 등 인기캐릭터 20여 종의 유등을 전시한 유등 캐릭터존, 해바라기와 수국 등 여름꽃으로 꾸며진 포토존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일로읍 상권과 연계한 지역상생 프로그램 '백련마실'도 운영되어 백련문화센터 및 카페 10여 개소에서 문화·체험·판매 프로그램 즐기며 이벤트를 통해 일로 카페 투어 할인권(20%)을 받을 수 있다.

27일과 28일 오후 8시부터는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정사초롱을 들고 고요하고 신비로운 생태탐방로를 산책하는 '여름밤 연빛달빛야행(夜行)'이 진행된다.

축제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무안여행 인증샷' 이벤트와 '맛뜯무안 SNS인증' 이벤트, 한우 육포 나눔 행사, 우리 한돈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

무안=김행연 기자



해남군, 산림기능 회복 목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

전라남도 해남군이 2026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조림사업은 수종 갱신이 필요한 산림이나 모두베기 이후 조림이 가능한 임야 등을 대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된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산림이나 밀생되어 생육이 불량한 임지에 대해 솜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통해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규모가 넓고 접근이 쉬운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며 조림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를 산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로 해남군 관내 임야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해남군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061-530-5429)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내용과 세부 지침은 해남군 누리집의 소통해남 -군정뉴스-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 이후 5년 이내에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